

# 시멘트 값 또 인상...광주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 부추긴다

### 쌍용C&E·성신양회·한일현대시멘트 등 두자릿수 올려 100억 규모 건물 1억원 상당 공사비 상승 발생할 듯 광주 분양가 1년새 평당 275만원 올라 1815만원 수준

건설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나서 가격이나 치솟는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주요 시멘트업체들이 상반기 '영업이익 잔치'를 벌여놓고도 또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건축비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지역건설업체와 레미콘업체에 따르면 쌍용C&E와 성신양회는 7월 출하분부터 시멘트 가격을 t당 11만9600~12만원으로 14% 올렸다. 한일·한일현대시멘트도 9월 출하분부터 12.8% 인상한다.

쌍용C&E, 성신양회를 시작으로 한일·한일현대시멘트가 가격 인상에 가담하면서 나머지 시멘트업체인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등 주요 업체들 역시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업계는 전기요금 인상과 유연탄 수입 원가 급증, 환경규제에 따른 설비 투자를 인상을 가격에 인상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다. 시멘트업계가 가격 인상에 나서자 지역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멘트와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은 주택 등

건축을 위한 건설자재 중 핵심적인 자재로, 이들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면 결국 건설 생산 비용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시멘트 가격 불안정이 공사 재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보고서를 보면 시멘트 가격이 지금보다 7% 오를 경우 100억원 규모 주거용 건물은 48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 인상하면 추가 공사비는 6800만원이 필요하다. 시멘트업계가 최근 14% 가격 인상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약 1억원 상당의 공사비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또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m<sup>2</sup>당 54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평당(3.3m<sup>2</sup>) 1814만6700원인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m<sup>2</sup>당 466만6000원에 비해 17.85%(83만3000원)이나 오른 것이다. 불과

1년 사이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약 275만 원이나 올랐다는 얘기로, 이번 시멘트 값 인상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를 비롯한 인근 나주·장성·담양·화순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이번 시멘트 값 인상에 운반비도 올라 레미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1년 6월 이후 최근 2년간 시멘트 공급가격이 7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60% 인상, 같은 기간 1회전당 5만원이던 운반비는 올해 6만4000원으로 28% 올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역의 한 레미콘 회사 대표는 "레미콘 가격은 이달부터 최소 8% 이상 인상을 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분양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고분량 차원에서 기존 대표규격(25-24-150)의 가격을 기존 9만5400원에서 10만1200원(6%↑)으로 올리는 등 시멘트 값 인상분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시멘트업계가 차차 가격 인상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삼표시멘트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153.4% 급증한 399억원을 기록, 한일시멘트도 100.8% 늘어난 909억원을 기록했다. 성신양회도 영업이익이 287억원으로 72.6% 늘었고, 쌍용C&E는 시멘트 부문 영업이익이 지난해 8억원에서 339억원으로 경증 뛰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측은 "시멘트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의 가격이 전년 대비 58%나 하락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시멘트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시멘트 업계는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신세계 개점 28주년 고객 감사제 진행

### 24일~9월 3일 28개 품목 특가 사은품으로 미역·소금 제공

광주신세계가 개점 28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제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24일 오는 9월 3일까지 '개점 28주년 기념 감사 대축제'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28주년을 기념한 사은품과 7% '신백리워드'를 증정하고, 28개 품목을 엄선해 특가에 판매한다. 우선 단스에서는 핸드백과 스니커즈를 수량 한정 특가에 판매하며 의류브랜드 '올리브데올리브'와 '빌보드', '레노마 캐주얼', '카운테스마라' 등에서 일부 제품을 할인한다. 또 오는 27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대전을 전개한다. '프리다'와 '미우미우', '펜디', '셀리느', '돌체앤가버나', '지방시', '엠포리아르마니', '오일릴리', '맨온더본' 등 다수 브랜드가 참여한다. 같은 기간 M.U.S.P.O.Z 사계절 창고 대공개전을 펼친다. 의류와 용품 등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본관 지하1층 스페셜스테이지에서 '윤현공', '앤스티치', '포드메리온', '테팔' 등이 참여하는 생활전문관 4주년 기념 '베딩·주방' 인기상품 특집전



24일 광주신세계 개점 28주년을 기념해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 마련된 해외 유명 브랜드 대전을 찾은 고객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을 진행한다. 27일까지 당일 15만원 이상 구매시 안옥남 대장 각(200g)을 매일 100명 한정 증정한다. 28일부터 9월 3일까지는 3년 묵은 천일염(1kg)을 매일 100명 한정 증정한다. 이밖에 결제 금액별 '신백리워드'를 제공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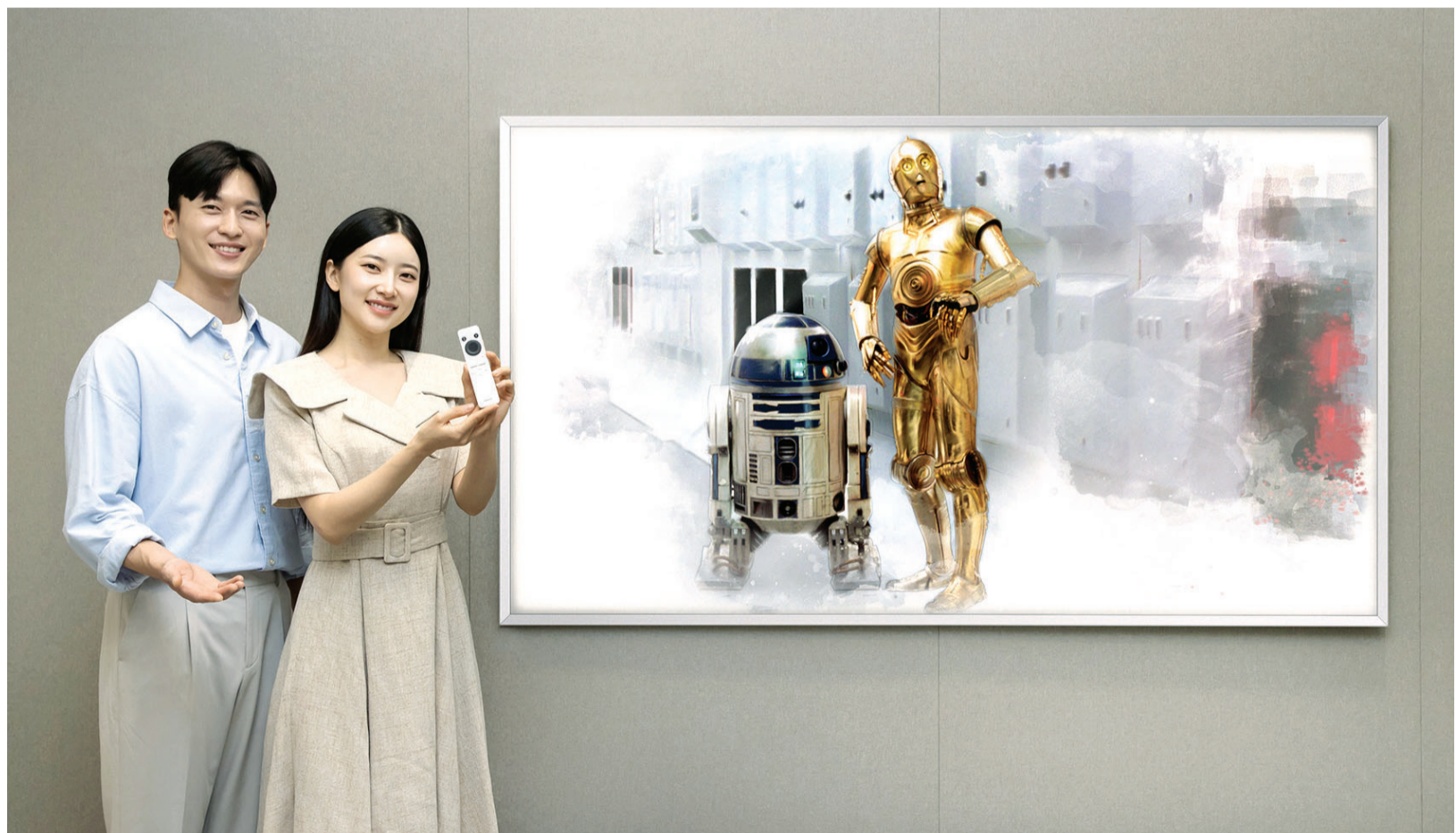
24일 오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의 '강진 승원팰리체 리버시티' 모델하우스 내부가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승원건설그룹 제공>

## '강진 승원팰리체 리버시티' 대박 예감

### 모델하우스 오픈 첫 날 지역민들로 북적 세대별 전용 창고... 교육·생활인프라 갖춰

승원건설그룹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명품 임대아파트 '강진 승원팰리체 리버시티'가 모델하우스 오픈 첫 날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24일 문을 연 강진 승원팰리체 리버시티 모델하우스(강진읍 강진읍 동성리 213-8)는 낯선 날에도 오픈 전부터 고객들의 대기행렬이 이어지는 등 인기 실감케 했다. 강진군 최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강진 승원팰리체 리버시티'는 뛰어난 설계 능력과 품질관리 기술을 적용한 품격을 갖춘 특화설계로 차별화를 꾀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 탐진장 신(新) 주거타운에 들어서는 단지는 전용 84㎡(구 34평), 지하 1층-지상 17층, 4개 동, 22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예정은 2025년 9월이다. 강진군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4베이 설계로, 전 세대 정남향 배치로 채광·통풍을 극대화한다. 품격을 높인 특화설계로 캠핑용품,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별 전용 창고가 마련된다. 강진에서 가장 많은 세대당 1.4대의 넉넉한 확장형 주차공간도 확보, 백화점식 주차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로 편의성을 높였다. 골프연습장과 휘트니스센터, G·X룸,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최초 및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탐진강을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과 강진종합운동장, 강진천변생태호수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비롯해 인근 계산초와 강진동초, 강진중, 전남생명과학고 등 도보권 통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강진을 전역을 차량 5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데다, 강진버스여객터미널을 비롯 2번국도와 18번국도, 남해고속도로와 광주-완도고속도로(2026년 개통예정)를 이용해 광주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수월하다. 최첨단 홈 IoT 시스템은 물론 현관 에어샤워, 세대 내 공기청정, 미세먼지 알람정보 등 예고 솔루션을 갖춘다. 강진군청과 읍사무소, 보건소, 법원, 병원, 마트 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승원팰리체는 2021년 7월 '2021 상반기 한경주거문화 대상'과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협회 등이 주관하는 '제26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우수상, 올해 4월 3년 연속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프리미엄 아파트 부문)을 수상했다. 강진 승원팰리체 리버시티 모델하우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픈 둘째날인 25일은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더 프레임 디즈니 100 에디션' 공개 삼성전자는 24일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e)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공개했다.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출시하는 이번 에디션은 '디즈니100' 로고가 새겨진 플래티넘 실버 메탈 베젤을 사용했다. 마키 마우스 캐릭터를 적용한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리모컨도 제공한다. 9월 1일부터 공식 판매에 들어가며 삼성 강남에서 '더 프레임 디즈니 100 에디션' 실물을 포함한 다양한 디즈니 콜라보 액세서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모델이 '더 프레임(The Frame)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 광주경총, 인사노무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취호원 회장)는 지난 23일 회원사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인사노무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인학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을 초청, 개정 노동법을 안내하고 사업장 기초노동절서 자율 진단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우리지역 기업 규모·직종별 개정 노동법 적용 시기 ▲하반기 지도점검 방향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분동향 및 사례 등을 안내했다. 김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안전 훈련과 사업주 훈련, 일학습병행 사업 등을 소개했다.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은 "올해 처음 개최

한 인사노무관리자 교육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감사하다"며 "광주 경총은 회원사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 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하반기 24년 개정 노동법과 연말정산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총괄사업본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전남 증기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창호)는 24일 광주경제진흥생생일자리재단 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증기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판매 지원사업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TV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광주·전남지역 40여개 업체가 참석해, 지원사업 소개와 입점 준비를 위한 MD 상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창호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판매 전략을 세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정보제공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자체와 함께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지원사업은 내년 2월 공고 예정이며, 업체당 1회 50분간 홈쇼핑에 생방송되며 방송입점 수수료는 사·도에서 업체당 15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7.68(+32.18)
↑ 코스닥	901.74(+18.87)
↓ 금리(국고채 3년)	3.759(-0.012)
↓ 환율(USD)	1322.60(-17.10)